

길림시 포대산에 청소년빙상스포츠공원 조성



포대산 입구

장백산 여맥에 속하는 포대산은 길림시 풍만구 강남향 영경촌 8사에 위치해있으며 시중심에서 약 3키로메터 떨어진 가까운 거리이다.

포대산 총부지면적은 81.2헥타리이고 주봉의 해발고도는 444.8메터이며 최대 락차는 212메터로서 산의 경사도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포대산의 원래 이름은 동대만산으로 사다리형의 산이라는 뜻이다. 해방전쟁시기에 길림 시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포대, 포치까, 참호 등을 건설하였다.

이로 하여 길림시가 해방된 후 산에 많은 참호와 포치까가 있다고 해서 백성들은 포대산이라고 불렀으며 지금까지 계속 포대산이라 불리우고있다.

등산로를 따라 영춘정, 람강정을 거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상에 오르면 산의 포치까가 보이고 멀리 도시 풍경이 시야에 안겨온다.

시내에서 겨우 3키로메터 떨어져 있는 데다 사시절 풍경이 다르기 때문에 등산을 가는 시민들이 많다.

포대산체육공원은 2002년에 건설

을 시작했으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장

장 13년째 건설이 중단되었다. 이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개조하기 위하여 길발그룹도시투자회사는 포대산단지에 대해 도로 정리, 낡은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1기와 2기에 걸쳐 도보, 등산, 레포츠 기지와 포대산 청소년빙상스포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포대산청소년빙상스포츠공원 프로젝트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드디어 지난해 연말에 전면 개방,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포대산청소년빙상스포츠공원에는 스키수업, 스케이트라인, 공익빙상, 빙셀캠프, 설상표류 등 구역을 설치하고 길림지역에서 가장 긴 설상표류 활주로, 극지캠프 등 빙설운동오락 종목을 출시하여 길림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청소년빙설운동공원이 되었다.

앞으로 이곳에 또 천문교육연구기지를 건설하여 광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보급연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 차영국기자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 북경서 ‘중화민족공동체체험관’ 전시 참가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북경시, 국가문화국의 공동 기획으로 북경에서 개최된 첫 ‘중화민족공동체체험관 및 몽장(蒙藏) 학교 옛터 2025년 제1기 체험 항목’ 전시에 길림성과 하북성이 참가했다.

길림체험구는 ‘길선동심 대미길림’을 주제로 관중들에게 무형문화유산

체험, 특산미식, 가무공연, 특색문화창의제품 등 가장 대표적인 항목을 공연, 전시했다.

길림시 전시 주간(2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동안에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이 초청을 받고 ‘장심(匠心) 길림’과 ‘매력길림’ 두 전시구의 전시에 참가하여 길림체험구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다.

‘장심길림전시구’에서 관광객들은 ‘조선족웃’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조선족웃’은 ‘웃놀이’라고도 하는데 널리 류전되고 있는 조선족 전통 민속오락활동으로서 력사가 유구한바 여러 민족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

부에 올랐다. ‘웃놀이’는 게임 과정에 일정한 기교와 단결협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매력길림전시구’에서 관광객들은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무용수들이 공연한 조선족 장고춤 <고혼>(鼓欣)과 소수민족 무용 <산노래 불러 당에 드리네>를 감상했다.

/ 차영국기자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업 전기 사용 최적화에 도움

2월 18일, 길림전력공급회사 기술일군들은 기업의 명절후 조업 재개에 안전하고 믿음직한 전력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길림영길릉원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를 찾았다.

전력공급회사 기술일군들은 룡원과 학기술주식유한회사 생산작업장에서 생산설비의 전력 공급을 살펴보고 기업의 생산전력 사용 부하 특점에 근거하여 전문 건의를 제기하고 기업의 생산규모, 전력 사용 수요와 결부하여 합리화 전력 사용 방안을 제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의 증대를 실현하도록 기업을 도왔다.

음력설후 기업들은 조업 재개 고봉기에 진입, 전력을 다해 생산을 하고 주문을 맞추고 있다.

길림전력공급회사는 기업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일군들을 조직하여 기업을 방문하고 생산작업장, 배전실과 전력 공급선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안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하며 전



영길현 영개 66 키로볼트 송전선로탑 조립 현장

기 부하 상황과 특수 전기 수요를 상세히 료해하고 개성과 전력 공급 방안을 제정하며 ‘1기업 1대책’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전기 사용량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가격 책정 책략을 선택하며 전기 사용 습관을 최적화하고 설비 가동과 중지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지도했다.

“우리가 조업을 재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전력공급회사에서 찾아와 안전검사를 해주었는데 봉사가 아주 주도면밀하고 열정적이었다.” 룡원 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부총경리 화장강은 이렇게 말했다.

길림전력공급회사는 또 마케팅 시스템의 대량의 수치를 운용하여 기업의 전력 사용량 상황을 동태적으로 감시하고 주동적으로 기업과 련결하고 앞서 개입하여 새로 증가된 전력 사용수요를 료해하고 녹색 통로를 개통하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사용 시간을 단축하며 3급 보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기업의 요구가 즉시 처리되고 한시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전력 사용 수요를 전력으로 보장하였다.

현재 길림전력공급회사는 루계로 80여개 기업을 방문하여 전기 사용 현황 63개를 조사해결하고 전기 안전 사항 선전자료 240여권을 발급하였다.

/ 송화강넷

길림시 장백섬습지공원 인기몰이



최근, 철새떼가 몰려들고 겨울 풍경이 그림같은 길림시 장백섬습지공원에는 관광객들이 쇄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얼음놀이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장백섬습지공원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으로 한복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방불케 한다.

/ 송화강넷

영길현 광자구촌

홍색관광으로 치부의 길 개척

최근, 영길현 북대호진 광자구촌(桃子沟村) 제1서기 설백관이 동영상에 등장했다.

위풍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 거기에 개가죽모자를 쓰고 양가죽저고리를 입은 설백관의 모습은 단연 드라마 속 영웅, 항일련군 전사의 형상이다.

이는 설백관이 관광객을 이끌고 홍색 단막극을 촬영하는 한 장면이다.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광자구촌 사람들은 여간 공을 들인 게 아니다.

2021년 광자구촌의 집체경제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금열쇠다!’ 신임 제1서기 설백관의 창도하에 마을에서는 풍유농민전문합작사를 설립했는데 66가구의 촌민들이 입사했다.

5명의 투자상을 유지하여 산비탈 밭에 1,200헥타르의 목표기지를 건설하고 온실하우스 9채를 짓고 산나물 재배를 하는 등 현지 실정에 맞게 각종 산업을 발전시켰다.

1년후 마을은 30여만원의 소득 증대를 실현했다. 2년후 다시 계산해보니 마을의 집체수입이 100만 원을 넘겼다.

이 기간에 설백관은 독학으로 300여개의 짧은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하여 마을의 사업과 생활의 사소한 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초, 설백관은 집체경제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하여 새로운 구상을 했다. 지난해 8월 그는 간부들을 인솔하여 마을에서 15키로메터가량 떨어진 화전풍설관광지를 찾았다. 당시 관광지 1기는 유후 상태였다.

“모두들 이곳의 초가집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회고관 관광지로 개조하고 싶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화전현지(桦甸县志)를 조회한 결과 이곳의 원래 이름은 위호산툰이었으나 후에 홍룡산툰으로 바뀌었고 항일련군 전사들이 이곳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항일련군 영웅들의 발자취를 추적하

면서 나는 감격스러웠다.”라고 설백관은 소개했다.

마을에서는 곧 회의를 열고 촌집체합작사의 명의로 홍색관광기지를 임차하여 홍룡관광지를 건설하고 홍룡문화연구기지도 만들기로 했다.

4개월간의 개조 건설을 거쳐 풍설부락 1기가 얼굴을 바꾸어 홍색문화관광연구기지로 되었다. 항일련군 영웅사적 전시관을 설치하고 항일련군지휘부를 환원했으며 항일련군복장 및 관련 도구를 구입하고 경마장을 건설했다.

“앞으로 우리는 항일련군박물관을 하나 더 건설할 것이다. 관련 오래된 물건은 이미 준비가 다되었다.”

지난달에 기지는 시험 영업을 했다. “별로 홍보하지 않고 내 틈틈이 통해 대외적으로 선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한달에 2,000여명의 관광객을 접대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설백관은 일부 관광객들이 향련로를 다시 걸으러 온 것을 보고 본인이 단막극 촬영에 감독까지 맡았다.

“내가 요 몇년 동안 쌓은 짧은 동영상 촬영 경험이 이번에 새로운 용도로 쓰였다.”

이날 그는 외지 관광객 몇명과 함께 기지에서 군복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소품총을 들고 대사를 나누어 외우며 단막극을 촬영했다.

“이 단막극 촬영에서 나는 배우이자 감독이다. 가장 나이가 적은 관광객 배우가 70세 고령이지만 모두 몰입해 그럴듯하게 연기했다.” 설백관은 출연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곳의 산은 영웅의 산이고 이곳의 강은 영웅의 강이다. 영웅의 선혈은 이 오래된 땅을 물들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가져다주었다. 홍색관광을 통해 영웅을 추모하고 회역을 되살려 광자구촌의 집체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면서 치부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설백관은 신심 가득히 말했다.

/ 송화강넷

길림시 청소년 빙설 계열 경기 개최

2025년 ‘달려라·소년’ 길림시 청소년(학생)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평행회전 종목 포인트 경기(결승전)가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길림시 만과송화호스키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길림시체육국과 길림시교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시설상경기훈련센터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시풍만구스키협회와 길림시 만과송화호스키휴양지에서 협찬했다.

감을병정 4개조를 설치하고 각 남녀 2개조, 도합 16개조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 가운데 길림 시내 6개구(현)의 도합 43개대표팀의 500여명 선수들이 각축을 펼쳤다.

이번 경기는 ‘달려라·소년’ 계열 경기중의 하나로 길림성 ‘백만명 청소년’ 빙설 참여 지시 정신에 호

응하여 개최되었는바 스키를 사랑하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 빙설경기에 참여하는 플랫폼홈을 구축하여 광범한 청소년학생 군체가 빙설경기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빙설경기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길림시 미래 빙설경기운동을 위해 더욱 많은 천부적 재질이 있는 선수들을 양성하고 수송하기 위함이다.

이번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길림시 청소년들의 신체소질과 스키기능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전 시에 짙은 빙설운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빙설운동에 관심을 돌리고 참여하도록 더욱 많은 가정과 시민들을 이끌어 길림시 빙설운동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 강성일보

길림시 강남공원으로 꽃구경 가요

길림시 강남공원의 화훼온실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련일 꽃구경을 나선 시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강남공원 화훼온실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을 한껏 들이켜며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 길림일보

